

West Kalimantan

2018년 7월 기도편지

배성현. 이산정. 지온. 승은. 승우 가족

적도의 땅
폰티아낙을
가슴에 품고

“그런즉 저희가
믿지 아니하는 이를
어찌 부르리요
듣지도 못한 이를
어찌 믿으리요
전파하는 자가 없이
어찌 들으리요
보내심을 받지
아니하였으면
어찌 전파하리요
기록된 바
아름답도다
좋은 소식을 전하는
자들의 발이여 함과
같으니라”

(롬 10:14~15)

여러분의 사랑과
기도와 후원은
인도네시아
서부칼리만탄을
복음화시키는
소중한 씨앗으로
심겨질 것입니다

“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”(약 1:4)

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안부 인사를 올립니다. 그간 평안하셨는지요. 저희 가족은 비자문제로 지난 6월 5일에 한국에 일시 귀국했다가, 7월 11일에 두 달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도착비자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. 스폰서가 되어 줄 법인 측의 서류 문제로 비자 수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, 이 일로 저희는 최근 몇 달 동안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 마음이 어려운 중에 있지만, 야고보서 1:4 말씀처럼 어려운 중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에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더 힘을 내보려 합니다. 저희 가족의 비자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기억하며,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저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어제 비자수속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 측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,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해결이 되어,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속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예기치 않게 발생한 법인 측 서류의 문제로 비자수속이 지연되어 너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, 앞으로 남은 일처리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계속 참고 기다려달라며 양해를 구해왔습니다.

저희는 9월 5일에 다시 쿠칭(말레이시아)으로 가서 며칠 체류한 후 방문비자를 받아 다시 폰티아낙에 들어오려고 계획 중입니다. 종교비자수속이 언제 해결될지 정확한 시일을 알 수 없기에, 우선 최장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‘사회문화비자’를 발급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비자 문제로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다녀와야 하고 방문비자 연장 비용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, 사역적으로도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... 종교비자의 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이 시간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을 위해서, 그리고 비자 수속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*방과 후 교실 사역의 열매



빠꾸찡이라는 시골 지역의 방과 후 교실 사역을 통해 연결된 이줄(Ijul) 학생이 폰티아낙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(기독교 교육학)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고3이면서도 방과 후 교실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던 친구라 생각이 났었는데, 이번 주부터 임마누엘성서침례교회에 출석하며 주일학교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.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있었던 자매인데,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성서침례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

지요.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e-mail: 0212bae@hanmail.net / 인터넷전화(국가번호와 지역번호 없이): 070-4843-9485

후원계좌: 국민은행 048401-04-128048 (배성현) 우체국 013052-02-169596 (배성현)

적도의 땅
폰티아낙을
가슴에 품고

“그런즉 저희가
믿지 아니하는 이를
어찌 부르리요
듣지도 못한 이를
어찌 믿으리요
전파하는 자가 없이
어찌 들으리요
보내심을 받지
아니하였으면
어찌 전파하리요
기록된 바
아름답도다
좋은 소식을 전하는
자들의 발이여 함과
같으니라”

(롬 10:14~15)

여러분의 사랑과
기도와 후원은
인도네시아
서부칼리만탄을
복음화시키는
소중한 씨앗으로
심겨질 것입니다

* 정글교회사역



비자문제로 한 달 간 사역지를 비운 탓에, 다시 돌아온 뒤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. 정글교회를 방문하며 말씀을 전하고, 아울러 곧 진행될 예배당 건축 상황을 점검하며 분주히 지내고 있지만,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. 특별히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칼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건축이 좋은 날씨 가운데 우기 전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

* 새 학년에 올라간 꼬마선교사 삼남매



한국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주부터 꼬마선교사 삼남매는 새 학년 등교길에 올라갔습니다. 2살 때 인도네시아에 왔던 막내 승우도 어느새 의젓한 2학년이 되었고, 승은이와 지온이도 각각 3학년과 4학년이 되었습니다. 새 학년 첫 등교 기념으로 찍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‘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선교지 생활이 어땠을까?’하는 ‘아찔한’ 상상을 해봅니다.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요.^^ 낯선 이곳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 준 삼남매가 그저 대견할 뿐입니다. 꼬마선교사 삼남매를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로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 든든한 기도의 후원을 힘입어 저희는 또 다시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



2018년 7월의 마지막 날
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
배성현 선교사 가족 올림

적도의 땅
폰티아낙을
가슴에 품고

“그런즉 저희가
믿지 아니하는 이를
어찌 부르리요
듣지도 못한 이를
어찌 알리리요
전파하는 자가 없이
어찌 들리리요
보내심을 받지
아니하였으면
어찌 전파하리요
기록된 바
아름답도다
좋은 소식을 전하는
자들의 발이여 함과
같으니라”

(롬 10:14~15)

여러분의 사랑과
기도와 후원은
인도네시아
서부칼리만탄을
복음화시키는
소중한 씨앗으로
심겨질 것입니다

기도해 주세요

〈사역의 필요〉

1. 임마누엘성서침례교회

- (1)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
- (2) 신실한 현지인 목회자가 연결되도록
- (3) 10월 중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, 좋은 장소를 잘 만날 수 있도록

2. 정글교회

(1) 팔리마스침례교회

- ① 예배당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
- ② C2C 복음전도사역(매주 목요일)을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도록
- ③ 싸라기목사님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

(2) 뜨른땅침례교회

- 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
- ② 교회를 통한 기독교 유지원 사역의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
- ③ 디노목사님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

3. 교육법인사역

(1) 한글교실

- ① 현재 약 3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, 이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계속 열려져 갈 수 있도록
- ②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강의와 배선교사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

(2) 시골지역 방과 후 교실 사역

- ① 방과 후 교실 사역을 통해 젊은 친구들이 임마누엘성서침례교회 사역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
- ② 두 번째 방과 후 교실 사역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쉼루팜(Serukam) 지역에 방과 후 교실 사역이 잘 연결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

4. 사역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재정적 필요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. 후원교회 및 후원자가 계속 잘 연결 되어 이곳에서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〈가족의 필요〉

1. 가족 모두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2. 스폰서가 되어줄 법인의 서류 문제가 잘 정리되어 수속중인 종교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3. 9월 5일에 방문비자(사회문화비자)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는 여정과 필요를 위해서, 그리고 모든 준비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4. 새 학년에 올라간 모마선교사 삼남매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,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5. 배선교사와 이선교사가 건강한 가운데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